

‘주민증’ 미발급 광주 고교생 1천명 과태료

1년 경과시 최대 5만원... 지난해 1640만원 부과

학업 바빠 발급 미뤄... 자치구 안내문 발송 등 독려

해마다 광주지역 고등학생 1000여명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아 과태료를 내고 있다. 학업으로 바쁘고 귀찮고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발급을 미루면서다.

21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 2011년 960건, 2012년 603건, 2013년 1070건, 2014년 1108건, 지난해 1100건이다. 지난해 5개 자치구가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1640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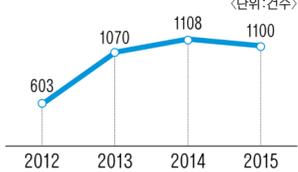
일부 거주불명자들의 재발급을 제외하면 대다수 미발급자가 신규 대상에 해당

하는 고등학생들이라는 게 자치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 때인 만17세 이상이 되면 1년 이내에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1년이 지나면 기간에 따라 5000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등학생들이 ‘성인’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서다. 고등학생 대부분이 신분을 나타내는 용도로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사용하고

■ 광주 주민등록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건수)



있고, 실제 학교 테두리 안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주민등록증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학업이다. 고등학생들이 주민센터가 문을 여는 평일에 시간을 내기가 여의치 않아서다. 실제 수능능력 시험이 끝나면 일선 주민센터에는 미뤄뒀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 청소년들

이 몰린다.

각 자치구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발급기간이 도래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또 남구, 북구, 광산구는 지역 희망학교에 한해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미루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학교방문 서비스를 해도 관심없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수차례 안내에도 사진 등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위해서는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과 사진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봄단장 손길에 활짝 웃은 벽화

광주시 서구 화정4동 통장단이 21일 화정동 중앙공원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줌과 용벽 벽화를 깨끗이 닦는 등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도올 선생과 함께하는 ‘시베리아 독서토론열차’

전남교육청 7월 28일~8월 12일...고 1년생 120명 참여

도올 김용옥 선생이 전남 청소년들과 유라시아 횡단열차를 타고 가며 민족정신과 꿈, 희망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중국~러시아 일대에서 진행되는 ‘독서토론 열차학교’ 프로그램에 도올

김용옥 선생이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독서토론 열차학교는 독서·토론 교육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위해 진행되는 전남도 교육청의 핵심 사업으로, 이번 대장정에 전남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20명, 교사 등 20명이 인솔단으로 참가한다.

도올 선생은 중국 대련~러시아 모스크바 간 15박 16일 일정을 함께 하며 꿈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민족의식, 역사관 형성을 위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도올은 유라시아 열차 안에서 ‘우리 민족 청년들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청소년들과 만나고 연변대학(7월 31일), 우수리스크(8월 1일), 이르쿠츠크(8

월 5일), 모스크바(8월 10일) 등지에서 ‘이상실, 안중근 선생 등 독립투사들의 인간적 고뇌, 우리 민족의 시련, 한국 역사 속의 러시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교육청은 참가 학생들의 사전 필독서로 ‘중국일기’를 선정, 학생들이 도올 철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도올 선생은 교육 기부 형태로 참여한다”면서 “참가 학생들은 15박 16일 동안 도올 선생과 다양한 얘기를 나누며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3, 해질 18:46, 달뜨기 17:43, 달지기 05:48

해상 안개 주의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5/18	보성	맑음	0/16
목포	맑음	4/13	순천	맑음	6/18
여수	맑음	8/16	영광	맑음	2/14
나주	맑음	2/18	진도	맑음	2/14
완도	맑음	5/16	전주	맑음	3/16
구례	맑음	2/18	군산	맑음	2/12
강진	맑음	2/16	홍원	맑음	1/16
해남	맑음	1/16	홍산도	맑음	5/10
장성	맑음	1/16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파고(m)	풍향	파고(m)	풍향
서해	남서~서	0.5	서~북서	0.5	
남부	남서~서	0.5~1.0	서~북서	0.5~1.0	
남해	남서~서	0.5	서~북서	0.5~1.0	
서부	남서~서	0.5~1.5	서~북서	0.5~1.5	
제주	남서~서	0.5~1.5	서~북서	0.5~1.5	

생활지수

주요	주의
식중독	보통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보통

주간 날씨

날씨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날씨	☁	☀	☀	☀	☀	☀	☀
강수량	6/15	1/13	1/13	2/14	3/15	4/15	5/16

광주 어르신들은 봄에 친구와 여행 가고파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설문 37% 응답... 국내 여행지 선호

꽃 피는 봄 광주지역 노인들은 누구와 어디로 여행을 떠나고 싶을까.

최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하 노인타운)이 이용자 430명을 대상으로 노년 여행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행을 가면 누구와 함께 여행하고 싶나?’라는 질문에 ‘친구’라고 답한 응답자가 36.7%(15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부(34%), 모인 구성원(13.7%), 가족 또는 친척(12.2%) 순으로 나타났으며, 3.4%는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노인타운이 세대 구성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부부세대(306명)의 경우 10명 중 6명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고 밝혔다. 부부끼리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밝힌 응답

자는 41.5%였으며 친구 30.7%, 가족 또는 친척 12.7%, 모인 구성원 12%, 혼자 2.9% 순으로 조사됐다.

독거 및 자녀동거 세대(103명)에서는 54.3%가 ‘친구’라고 답했고, 이어 모인 구성원 18.4%, 부부 11.6%, 가족 또는 친척 10.6% 순이었다. 가장 여행하고 싶은 계절로는 봄(52.3%)과 가을(40.3%)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여행지로는 국내(58.9%)가 해외(41.1%)보다 많았다.

국내 여행 선호지역은 제주도(39.4%), 울릉도(28.2%), 강원(20.7%) 순이었으며 여행기간은 2~3일(41.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대법원 “돈·흑색·불법 선거개입 당선 무효”

다음달 20대 총선과 관련해 금품살포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당선 유·무효가 엇갈리는 엄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돈선거·흑색선거·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의 형

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17~18일 열린 간담회에서도 각급 법원장들은 선거범죄를 신속히 처리하고 양형을 엄정하게 해 왜곡된 선거결과를 빠르게 바로잡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의원

ICL(안내렌즈삽입술)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경체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라식/라섹/ICL/백내장/녹내장/망막/눈성형/노안

밝은광주안과

태영21 병원

당뇨병-갑상선 건강강좌

좌장 · 이문규 교수(삼성서울병원, 현 당뇨병학회 이사장)
강사 · 김재현 교수(삼성서울병원, 현 당뇨병학회 총무이사)
강호철 교수(화순전대병원)
김순호 부장(광주기독병원)
김상용 교수(조선대병원, 현 당뇨병학회 수석 부총무)
양태영 원장(태영21병원, 현 당뇨병학회 임차진료 이사)

일시 · 2016년 3월 26일(토) 오후 3:30~4:30
장소 · 태영21병원 2층 세미나실
문의 · 062)362-0075(광주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태영21병원 제22회 정기 음악회
3월 18일(금) PM 6:30

신세계백화점
태영21병원